

뉴스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문장부호의 번역 —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

최 경 희
(평택대)

1. 들어가는 말

뉴스 기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텍스트 유형이자, 번역 교육에 널리 사용되는 텍스트 형태 중 하나지만,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이는 뉴스 기사에 대한 논의 대상이 문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장부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음에 따라,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관심 역시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부호가 뉴스 텍스트에서 문장부호만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자적 내용뿐 아니라 문장부호도 의미를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 텍스트 번역 시 문장부호도 번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장부호의 번역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장부호의 번역과 관련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언어마다 문장부호가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문장부호를 번역하려면 해당 번역 언어 조합의 언어별 문장

부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두 언어 조합인 한국어와 영어 뉴스 기사에 나오는 문장부호의 경우도 서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번역 시 두 언어의 문장부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형태가 유사하나 쓰임새가 다른 문장부호(예: 한국어의 쉼표와 영어의 콤마)에서부터 두 언어 중 한 언어에만 존재하는 문장부호(예: 한국어의 가운데점과 영어의 세미콜론)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점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담은 뉴스 기사의 번역 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 관련 번역 지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장부호에 대한 연구, 특히 한국어와 영어 뉴스 기사에 나오는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뉴스 사별 가이드라인에 문장부호 사용에 대한 내용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번역을 위한 지침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 시 고려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지 하기의 연구 질문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 1) 한국어 기사 제목에는 큰따옴표(직접인용부호)가 많고 영어 기사 제목은 그렇지 않은데, 번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 2) 쉼표와 콤마의 형태가 비슷하고 사용 횟수도 빈번한데, 맞교환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 주로 어떻게 바뀌는지?
- 3) 말줄임표, 가운데점, 작은따옴표는 한국어 기사에만 있고 영어 기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번역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 연구에서 분석할 데이터는 뉴스 기사 제목으로, 한국어에서 영어 방향으로의 번역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문헌 조사

2.1 문장부호와 문장부호의 번역과 관련한 문헌 조사

상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뉴스 기사는 가장 많이 읽히고 또한 가장 많이

번역되는 텍스트 유형 중 하나지만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에 대한 인식은 학계에서도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문어체에서 문장부호가 없이는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문장구조가 모호해질 수 있는 등 중요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지만, 문장부호에 대한 존재는 대체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Bystrova-McInyre 2007: 138; Nunberg 1990: 9; Rodríguez-Castro 2011: 42). 학계에서 문장부호가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문장부호에 대한 연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문장부호가 다르고, 각 문장부호의 역할이 복잡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장부호마다 도입된 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김도훈 2017). 기능도 마침표나 쉼표와 같이 텍스트의 흐름에 경계를 정하는 문장부호가 있는가 하면, 국어의 이음줄이나 영어의 대시와 같이 구문 간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다(문장부호의 세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len 2002; Todd 2001; Trask 1997 등 참조). 더불어, 문장부호에 대한 학자 간 의견도 다르다. 학자들 사이에는 문장부호가 글을 읽을 때 내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주장과 구조상 모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대별된다(Parkes 1993; Partridge 1978: 188; Rodríguez-Castro 2011: 42). 전자는 글의 내용에 초점을 둔 문장부호의 역할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글의 구조에 강조점을 둔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근래에 와서는 문장부호의 기능이 의미를 살려주고 내용의 모호함을 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Parkes 1993; Partridge 1978: 188; Rodríguez-Castro 2011: 42) 상기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첫 번째 주장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학에 있어서도 문장부호에 대한 관심이 그 중요성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번역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지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문장부호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서 대표적인 국제 학술지란 『더 트랜스레이터(The Translator)』, 『타겟(Target)』, 『메타(Meta)』 등의 국제학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 국제 학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장부호를 주제로 하는 논문 제목은 찾을 수 없었다.¹⁾ 문장부호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늘고는 있으나(Ishenko 1998; Malmkjaer 1997; May 1997; 한국어와

1) 2022년 8월 22일 현재 조사한 결과이다.

영어 문장부호 간 차이에 대한 비교는 곽성희 2006: 6장, 한국어와 독일어 문장부호 간 차이는 한만열 2000 참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도 대다수가 문장부호의 실제적인 쓰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문장부호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대한 연구가 많고, 문장부호의 실제적인 쓰임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문학번역 연구에 치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Bystrova-Macintyre 2007).

한국어와 영어 언어 조합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뉴스 기사에 사용된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로 문학번역과 일부 출판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예를 들어 김도훈 2007, 2008, 2010, 2011, 2017; 김정우 1996). 물론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가 대단히 적으며(Bystrova-MacIntyre 2007; Rodríguez-Castro 2011), 특히 한국어와 영어 뉴스 기사에 나타나는 문장부호의 번역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한중 번역은 황은하 2013; 그리고 김진아 2001; 전기정 2007 참조). 또한 문장부호 번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문장부호 관련 가이드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기에 살펴볼 영어권 신문사 가이드라인도 일반적인 내용은 참고할 수 있겠으나 번역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한국 신문사의 경우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뉴스 기사에 나오는 문장부호의 번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신문사 문장부호 가이드라인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신문사나 뉴스 통신사의 스타일 가이드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문사나 뉴스 통신사에 기사 작성을 위해 자체 발간한 스타일 가이드북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가이드북에서 문장부호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다.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에이피통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스타일 가이드북 내용 중 적게는 2-3페이지, 많게는 15페이지 정도만 문장부호에 할애하고 있으며, 문장부호 란에 수

록된 항목도 각각 6~13개가 전부이다. 문장부호에 대한 설명은 세 언론사 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가이드북에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장부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영어권 신문사 문장부호 가이드라인

구분	로이터통신	에이피통신	뉴욕타임스
콤마	문장을 논리적 단위로 나뉘 의미를 살리는 역할. 지나친 사용은 문장의 흐름을 끊음	1) 같은 문장에 나오는 다른 단어나 절을 설명 2) 문장에서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3) 나열되는 대상을 분리할 때 등	열거, 동등한 관계에 있는 형용사 나열, 문장에서 해당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직접인용의 도입
콜론	단어, 구, 문장, 문단, 목록, 표 도입, 긴 인용 도입	1) 직접인용 바로 앞에 2) 나열되는 대상을 분리할 때 등	강조. 예: He had only one hobby: eating. 열거 대화 인용의 도입
하이픈	혼돈을 피하기 위한 사용 등 다양한 예시 소개	하이픈을 생략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사용	두 단어 이상을 연결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하나의 의미로 사용
직접 인용 부호	직접인용부호 사이에 있는 모든 단어에 화자가 말한 것 이어야 함	1) 직접인용부호 안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달. 일부 내용의 삭제는 가능하나, 인용되는 내용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 한함 2) 영화나 책 제목 등	1) 화자나 필자가 한 정확한 말(단어)을 직접 인용 2) 책이나 영화제목 등 3) 반어적이거나 비꼬는(ironic) 어투, 용어, 외국어 등

그런데, 국내 언론사의 경우는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다. 문장부호 관련 국내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지가 않으며, 기자들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스스로 터득하는 형편이라고 한다(최경희 2019). 하기에 제시한 내용은 이러한 국내 상황을

2) 이들 가이드북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로이터통신: <https://www.trust.org/contentAsset/raw-data/652966ab-c90b-4252-b4a5-db8ed1d438ce/file>, 에이피통신: <https://coppelljournalism.files.wordpress.com/2011/11/ap-stylebook.pdf>, 뉴욕타임즈: <https://www.pdfdrive.com/the-new-york-times-manual-of-style-and-usage-2015-edition-the-official-style-guide-used-by-the-writers-and-editors-of-the-worlds-most-authoritative-news-organization-d175910365.html>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외신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문 번역가와외의 이메일 교신 내용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장부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공식적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언론사는 도제식으로[...] 다른 기사를 보고 스스로 배우는 관행이 더 강합니다. [...] 각 언론사 기사를 보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듯합니다. (최경희 2019: 222)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영어권 언론사에서 공개하는 스타일 가이드는 문장 부호에 대한 내용이 한정적이고 번역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국내의 경우는 적용 가능한 스타일 가이드가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국내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것을 스스로 파악해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기에서는 뉴스 기사에 나오는 문장부호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 한영 뉴스 기사에 사용되는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해보고자 한다.

3. 왜 뉴스 기사 제목인가?

본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사 본문이 아닌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와 본문에 나오는 문장부호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문장부호는 대부분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며, 본문에 나오는 문장부호뿐 아니라 본문에 나오지 않은 문장부호도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제목 분석만으로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 분석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에 제시된 비교적 짝막한 뉴스 기사에서도 제목에 큰따옴표(직접인용부호)를 비롯하여 말줄임표, 쉼표, 작은따옴표 등 네 가지 문장부호가 등장하는데, 본문에는 말줄임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

3) 해당 기사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entertain>

“판단 착오”...브루스 윌리스, 마스크 미착용으로 약국서 쫓겨나 ‘망신 살’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찾았다가 쫓겨났다.

미국 매체 페이지식스는 12일(현지시간) 브루스 윌리스가 11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리스의 한 대형 약국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채 출입했다가 약국 직원의 요청에 의해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중략]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하드’ 시리즈로도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사 제목만 분석하기로 하며, 본문에 등장하는 문장부호는 기사 제목 분석 시 문장부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조하기로 한다.

4. 데이터 및 분석 방법

4.1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주된 데이터는 국내 주요 신문사 2곳 즉,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영어권 주요 신문사 2곳,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사 각 80건이다. 이들 신문사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영어권에서 판매 부수가 높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신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4곳 신문사와 비교 목적으로 국내 영자신문 The Chosun Ilbo(조선일보)와 Korea JoongAng Daily(중앙데일리) 각각 80건을 사용했다. 번역과 관련해서는, 경향신문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각 80건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상이한

ments/entertain_photo/2021/01/13/W7LAEV33GAPVW2E3JOH5AZHBO4/

주제 및 시차를 두어 두 차례 실시했는데, 1차 분석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1, 2차 관련 기사이며, 2차 분석은 2020~2021년 사이 실린 코로나 19 관련 내용이다. 1차 분석에서 기사 총 320건, 2차 분석에서 총 320건, 도합 640건을 분석하였다.

4.2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상기 언급된 주된 데이터인 국내 신문사와 영어권 신문사 기사에 사용된 문장부호 종류를 파악하였다. 이 중 주로 사용된 문장부호를 중심으로 두 그룹 간 차이점을 분석한 뒤 문장부호 번역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직접 인용 부호 등 일부 문장부호는 기사 제목 이외에도 해당 기사의 본문 내용도 참조하여 확인하였다. 한국어 기사 분석 시 주로 사용된 문장부호 중 하나인 말줄임표의 경우에는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논리적 의미(logical meaning)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5.1.3 말줄임표 참조). 주된 데이터 분석 후, 그 결과는 경향신문 한영 번역문과 비교하여 한영 번역에 적용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내 영자신문은 영어권 신문과의 비교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5. 분석 결과

본고의 주된 데이터인 한국어 신문기사 제목과 영어권 신문기사 제목에 나오는 문장부호를 비교해본 결과, 1차, 2차 조사 결과 문장부호 종류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장부호 사용 빈도는 영어권 기사보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권 신문기사와의 비교 목적으로 사용된 국내 영자신문은 문장부호 종류가 영어권 신문 기사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영어권 신문기사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인 번역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영어권 신문기사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한국어 기사에 나오는 문장부

호를 일부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어 기사 문장부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기에 제시하도록 한다.

5.1 한국어와 영어권 신문기사 제목 비교

주지한 바와 같이, 한국어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종류와 영어권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의 종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기사는 직접인용부호, 쉼표, 말줄임표가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에(<표 2>, <표 3>) 영어권 기사는 콤마, 하이픈, 마침표(<표 4>, <표 5>)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한국어 기사에서 영어권 기사보다 문장부호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기사는 평균 9종(1차 10종, 2차 8종)인데 비해 영어권 기사는 7.5종(1차 8종, 2차 7종)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표 4>, <표 5>에서 집계대상으로 포함한 ‘문장부호 없음’ 항목을 제외하면 영어권 기사에 사용된 문장부호 종류는 6.5종으로 한국어 기사가 평균 2.5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는 한국어보다 영어에서 “문장부호가 더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차이가 난다(김도훈 2008: 9). 이러한 주장은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문학번역에서 추출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문 기사, 특히 신문 기사 제목의 경우 영어권 기사보다 한국어 기사에 더 다양한 문장부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문장부호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문환 2018: 36 참고).

-
- 4) 영어권 신문 기사에서 숫자 중간에 나오는 콤마(예. 2,500)나 Mr., U.S. 등에 나오는 마침표는 집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Covid-19에 나오는 하이픈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 5) 국내 기사와 달리, 영어권 및 영자신문 기사에만 문장부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집계에 넣는 것이, 한국어 기사와의 비교를 위해,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문장부호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표 2〉 국내신문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1차

	직접 인용	삽표	말줄임표	가운뎃점	작은따옴표	물음표	붙임표	물결표	문장부호 없음	합계
조선	22	22	22	12	8	0	1	1	0	88
중앙	25	20	19	5	8	2	1	0	1	81
평균	23.5	21	20	8.5	8	1	1	0.5	0.5	84.5

〈표 3〉 국내신문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2차

	말줄임표	직접 인용	삽표	가운뎃점	작은따옴표	물결표	물음표	문장부호 없음	합계
조선	20	19	18	4	4	3	0	0	67
중앙	27	20	17	12	5	1	2	0	84
평균	23.5	19.5	17.5	7.5	4.5	2	1	0	75.5

〈표 4〉 영어권 신문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1차

	콤마	하이픈	문장부호 없음	콜론	직접 인용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합계
NYT	20	21	15	8	5	3	1	0	73
WP	21	10	9	11	6	2	4	1	64
평균	20.5	15.5	12	9.5	5.5	2.5	2.5	0.5	68.5

〈표 5〉 영어권 신문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2차

	콤마	마침표	문장부호 없음	하이픈	직접 인용	콜론	물음표	합계
NYT	14	23	4	10	3	7	3	64
WP	13	2	14	5	6	1	0	41
평균	13.5	12.5	9	7.5	4.5	4	1.5	52.5

더불어, 한국어 기사와 영어권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의 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기사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84.5건, 2차 조사에서는 평균 75.5건(1 2차 평균 80건)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영어권 기사는 1차 조사에서 68.5건, 2차 조사에서는 52.5건(1 2차 평균 60.5%)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기사 평균 80건에 비해 영어권 기사는 평균 60.5건으로 20건(13%)이 차이가 난다.⁶⁾ 그런데, 상기 언급한 영어권 기사에 보이는 ‘문장부호 없음’ 항목

6)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로 처리하였다.

을 제외하면 영어권 기사에 사용된 문장부호는 평균 50건으로 그 차이는 더 커진다.

5.1.1 직접인용부호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인용부호는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부호인데, 영어권 기사에서는 빈도수가 크지 않다. 특히,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부호의 본문 내 사용 빈도는 둘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 6>과 <표 7>을 보면 한국어 기사 제목에는 평균 20.5회(1차 21.5, 2차 19.5)의 직접인용부호가 사용되어 전체 기사 40건 중 절반 이상, 즉 두 기사에 한 번꼴로 직접인용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김병건(2016: 123)에서 조사한 수치(52.8%)⁷⁾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국내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과 달리, 영어권 기사는 평균 4.5회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어 기사가 영어권 기사에 비해 제목에서의 인용부호 사용 빈도가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표 6> 직접인용부호 사용 비교: 1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균	NYT	WP	평균
직접인용 여부	20	23	21.5	5	4	4.5
본문 내 존재 여부	동일: 0 요약/다른 표현/없음: 20	동일: 1 요약/다른 표현/없음: 21	동일: 0.5 요약/다른 표현/없음: 21	동일: 4 다른 표현: 1	동일: 4	동일: 4 다른 표현: 0.5

7) 이 수치는 보도 속 인용문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치이다.

8) 영어권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수는, 글라스고우 대학교 미디어 그룹(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에서 제안하는 적정 직접인용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표 7〉 직접인용부호 사용 비교: 2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균	NYT	WP	평균
직접인용 여부	19	20	19.5	3	6	4.5
본문 내 존재 여부	동일: 0 요약/다른 표현/없음: 19	동일: 3 요약/다른 표현/없음: 17	동일: 1.5 요약/다른 표현/없음: 18	동일: 3	동일: 4 거의 동일: 2	동일: 3.5 거의 동일: 1

기사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부호가 기사 본문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한국어 기사 제목에 사용된 인용이 본문에 존재하는 경우가 찾기 힘들었던 반면에, 영어권 기사에서는 제목에 직접인용부호가 사용된 경우 대부분 본문에도 사용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표 6>과 <표 7>을 다시 보면, 한국어 기사의 경우 직접인용이 사용된 20.5건 중 2건(1차 1건, 2차 3건)만이 본문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나, 영어권 기사에서는 평균 4.5회 중 3.5회가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영어권 기사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1건)도 제목에 정관사(the) 생략, 인용부호 위치의 차이 등 대부분 사소한 차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결과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서 직접인용부호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이준용 외 2007; 김병진 2016; 최경희 2019; 김용진 2004). 이를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영어권 기사에 비해 한국어 기사에서의 과도한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은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 시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부호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직접인용부호를 번역본에 옮겨놓는다면 소송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영번역 시 직접인용부호를 번역본으로 옮기기 전에 기사 제목에 있는 해당 인용이 본문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번역 의뢰자와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본문에 직접인용 형태로 존재할 경우 기사 제목에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본문에 직접인용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연구질문 1번). 또한, 영어권 기사에 나오는 직접인용부호라 하더라도 본문 내 같은 내용의 인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는 습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5.1.2 쉼표와 콤마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어 기사에 사용된 쉼표와 영어권 기사에 사용된 콤마 횟수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세부 항목을 들여 보면 둘 간의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한국어 기사는 주어 다음에 쉼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권 기사는 대등절과 종속절 다음에 콤마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기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주어(주제어⁹⁾ 포함) 바로 다음에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두 신문사 평균 16건), 대등절 다음이 뒤를 이었다(두 신문사 평균 3건)(<표 8>). 2차 조사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어 직후 사용이 1위로(두 신문사 평균 11건) 2위 대등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두 신문사 평균 5건)(<표 9>). 반면에 영어권 기사는 문두 부사구나 문두 종속절 바로 다음이 가장 많았는데, 1차는 평균 8건, 2차는 평균 8.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등절은 2위로 각각 4건과 1.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기사의 주어 다음에는 쉼표가 등장하지만, 영어 기사에는 콤마가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두 부사구나 문두 종속절에 콤마가 나올 확률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8> 쉼표와 콤마 사용 비교: 1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균	NYT	WP	평균
주어(주제어 포함)	19	13 (주제어 2)	16	0	0	0
대등절	2	4	3	3	5	4
문두 부사구, 종속절	0	1	0.5	8	8	8
단어, 구 분리	0	0	0	7	1	4
기타	1	1	1	3	3	3

9) 주제어(Theme)란 주어를 포함한 문두에 등장하는 문장구성 성분을 가리킨다(Halliday and Matthiessen 2014: 3장).

〈표 9〉 쉽표와 콤마 사용 비교: 2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균	NYT	WP	평균
주어(주제어 포함)	15(주제어 5)	7(주제어 1)	11	0	0	0
대등절	3	7	5	1	2	1.5
문두 부사구, 종속절	0	0	0	8	9	8.5
단어, 구 분리	0	1	0.5	1	0	0.5
기타	0	1	0.5	3	1	2

이와 같이 한국어 기사에서의 쉽표 사용과 영어권 기사에서 콤마의 사용이 상이함에 따라, 한국어 기사에서의 반점과 영어 기사에서의 콤마는 상호 맞바꾸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연구질문 2번). 특히, 한영번역에서 쉽표를 콤마로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어 기사에서는 주어 다음에 쉽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영어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대등절과 문두 부사구 바로 다음은, 두 언어권 기사에서 반점과 콤마를 사용하고 있어, 한영번역 시 반점을 콤마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쉽표와 콤마가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주어

김정은, 전용기 대신 중국 비행기 빌려 싱가포르에

주어(주제어)

12초 악수, 최대한 정중했지만 서로 안 밀리려는 인상

대등절

김정은 숙소는 벨리야호텔, 정상회담장은 메트로폴

문두 부사구와 종속절

Under fire¹⁰⁾, the Netherlands is speeding up the start of its lagging vaccination campaign.

10) 언어학 관점에서 부사구도 주제어 범주에 속하지만, 본고에서는 분석에 있어서의 단순화를 위해 편의상 부사구와 주제어는 별개로 분류하기로 한다.

As Rollout Falters, Scientists Debate New Vaccination Tactics

5.1.3 말줄임표

말줄임표는 명칭 그대로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장부호로 (곽성희 2006: 140), 영어의 일립시스와는 다르다. 일립시스는 기능 면에서 말 줄임표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장 미완성의 기능 이외에도 단어의 생략, 열거, 머뭇거림 등, 차이를 보인다(김도훈 2011: 123).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말줄임표와 일립시스의 기능

	일립시스	줄임표
기능 1	단어 생략 표시	문장 미완성 표시
기능 2	문장 미완성 표시	말 없음 표시
기능 3	단어 열거 표시	
기능 4	휴지 및 머뭇거림 표시	

문장부호 표기도, 말줄임표는 중간 지점에 점 여섯 개를 찍으나(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립시스는 아래에 점 세 개를 찍는다(예, “Today... I went to the park”). 그런데 신문 기사에 사용되는 말줄임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줄임표와 표기 및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 기사에 사용되는 말줄임표는 일반적으로 국어에 사용되는 말줄임표처럼 중간 지점에 점을 찍지만 점이 여섯 개가 아니라 세 개만 찍는다(예, “이런 호황은 없었다”...코로나 특수). 기능에 있어서도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내기보다, 기사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본고에서는 말줄임표의 기능을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상술(Elaboration), 확장(Extension), 향상(Enhancement)¹¹⁾과, 말줄임 본연의 의미로 분류하고 있다. 상술은 말줄임표 앞과 뒤의 내용을 병치하거나, 말줄임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뒷부분에서 예시 및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하며, 확장은 순접이나 역접을 나타내고, 향상은 인과관계, 조건 등의 의미를 보여준다. 말줄임

11) 이들 상술, 확장, 향상은 체계기능언어학 중 논리적 의미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본연의 의미는 국어에서 사용되는 원래의 용법, 즉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 데이터로 사용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등장하는 말줄임표의 사용을 아래 <표 11>과 <표 12>에 정리해보았다.

<표 11> 말줄임표 사용 비교: 1차

형태	조선일보	중앙일보
상술(Elaboration)	12	16
확장(Extension)	7	6
향상(Enhancement)	3	2
말줄임표 본연의 의미	0	0

<표 12> 말줄임표 사용 비교: 2차

형태	조선일보	중앙일보
상술(Elaboration)	9	20
확장(Extension)	6	7
향상(Enhancement)	6	1
말줄임표 본연의 의미	0	1

빈도수를 보면 두 신문사 모두 상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표 11>)에서, 조선일보가 12건, 중앙일보가 16건, 그리고 2차 조사(<표 12>)에서는 조선일보 9건, 중앙일보 20건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확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조선일보 평균 6.5건, 중앙일보 평균 6.5건), 향상이 뒤를 잇고 있다(조선일보 평균 4.5건, 중앙일보 평균 1.5건). 말줄임 본연의 의미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뉴스 기사에 사용되는 말줄임표의 특성을 고려해보건대, 한영 번역 시 고려할 점은 한국어 기사에 등장하는 말줄임표를 일립시스로 바꾸기보다, 기사 본문 내용에 의거하여 상술, 확장, 향상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 나오는 말줄임표의 예는 아래와 같다.

상술

‘인간 병기’ 3대 경호팀 총출동...싱가포르 세기의 경호戰

확장

“전국민 무료접종...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향상(인과관계)

북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개성시 봉쇄” 특급 경보

5.1.4 가운뎃점과 작은따옴표

가운뎃점과 작은따옴표 역시 한국어 기사에서만 확인되는 문장부호이다. 즉, 영어 기사에서 이에 대응하는 문장부호가 보이지 않는 항목들로, 한영 번역 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상기에서 살펴본 한국어 기사 제목 통계에서(<표 1>과 <표 2>), 가운뎃점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부호로 평균 8회 등장했다. 작은따옴표는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문장부호(평균 6회)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조사되어, 한영번역에서 이들 문장부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국내 기사 및 영어권 기사 데이터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이곳에서는 두 문장부호가 사용된 예를 제시하고, 하기 번역 관련된 장에서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가운뎃점과 작은따옴표가 사용된 예

트럼프_김정은, 싱가포르 도착...12일 ‘세기의 담판’

5.2 국내 발간 영자신문

번역 관련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의 경우를 참고로 살펴보려고 한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에서는 기사 제목에 사용되는 문장부호의 양상이 대체로 한국어 기사보다 영어권 기사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문장부호 없음, 콤마, 하이픈, 직접인용 항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총 문장부호 수가 한국어 기사에 비해 적어 영어권 기사와 유사하다(<표 13>과 <표 14> 참조). 하기 표에서 CI는 The Chosun Ilbo(조선일보)를 가리키고 JD는 Korea JoongAng Daily(중앙데일리)를 의미한다.

〈표 13〉 국내 발간 영자신문 기사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1차

	문장부호 없음	직접 인용	콤마	하이픈	콜론	물음표	합계
CI	32	7	0	0	0	1	40
JD	30	0	6	4	2	0	42
평균	31	3.5	3	2	1	0.5	41

〈표 14〉 국내 발간 영자신문 기사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2차

	문장부호 없음	콤마	하이픈	직접 인용	마침 표	콜론	물음 표	느낌 표	합계
CI	38	1	2	2	0	0	0	0	43
JD	21	11	4	1	2	1	1	1	42
평균	28.5	6	3	1.5	1	0.5	0.5	1.5	42.5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발간 영자신문에 사용된 문장부호 수가 한국어 기사에 비해 영어권 기사에 가깝기는 한데, 영어권 기사보다 상당히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영자신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항목인 '문장부호 없음'은 영어권 기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 발간 영자신문의 경우 영어권 기사에 비해 실제 사용된 문장부호 사용 횟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발간 영자신문에는 문장부호 없음 항목을 제외한 전체 문장부호의 사용이 12건 내지 21건으로 조사되어, 40건을 상회하는 영어권 신문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영어권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한국어 신문과 대조되는 결과로서 문장부호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신문의 경향을 따르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작용이 아닌가 추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영어권 기사에 비해 현저하게 문장부호의 사용 횟수가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발간 영자신문의 경우 향후 문장부호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을 제안해볼 수 있겠다.

5.3 한국어 기사와 번역본의 비교

상기에서 한국어 기사와 영어권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비교를 통해

이 둘 간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직접인용부호와 쉼표, 콤마 등 한영번역 시 문장부호의 번역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을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한국어 기사와 번역본을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자 한다. 4장 ‘데이터 및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와 번역본을 대상으로 비교해보고자 하는데, 경향신문은 한국어 기사와 한영번역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주요 신문사 중 한 곳으로, 영어 번역본과 함께 원본 접근이 용이하여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었다.¹²⁾

먼저, 한국어 기사 제목에 나오는 문장부호를 살펴보면, 전체 문장부호 수가 평균 84건 사용되어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합계(평균 80건)와 비슷하다(<표 15>, <표 16>). 세부 항목 별로 살펴보면, 작은따옴표(평균 21.5건), 말줄임표(18.5건), 쉼표(15.5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운데띄점(14건), 직접인용부호(12.5건), 붙임표(2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차 조사의 경우 작은따옴표가 가장 많고(23건), 다음으로 가운데띄점(20건)과 쉼표(16건)가 많으며, 2차에서는 말줄임표(24건), 작은따옴표(20건), 쉼표(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유사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인용부호는 1, 2차 조사 모두 4위로 되어 있어 1, 2위를 차지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기사에 비해 직접인용부호가 두 배 가까이 많은 등 전체적으로 한국어 기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1차

작은 따옴표	가운데띄점	쉼표	직접인용	말줄임표	붙임표	합계
23	20	16	13	13	1	84

<표 16>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 2차

말줄임표	작은 따옴표	쉼표	직접인용	가운데띄점	붙임표	합계
24	20	15	12	8	3	84

12) 경향신문 기사 및 영어 번역본은 <http://english.khan.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와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문장부호 수와 종류에 있어 한국어 기사는 다른 국내 신문 기사와 유사하고, 영어 번역본은, 문장부호 수에 있어서는 한국어 기사와 영어권 기사의 중간 정도였으며 문장부호의 종류는 대부분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문장부호를 사용하였다. 영어 번역에 사용된 문장부호의 수는 평균 70건으로, 1차 조사에서는 71건, 2차에서는 69건이었다(<표 17>, <표 18> 참조). 즉, 영어 번역본이 영어권 신문기사 평균(58건)보다는 많고, 한국어 신문 기사 평균(조선일보와 중앙일보 81건, 경향신문 83건)보다 적었다.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이하 출발어 텍스트)에는 작은따옴표와 말줄임표, 쉼표와 가운데띄임이 많이 사용된 문장부호였고, 영어 번역본(이하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하이픈과 직접인용부호, 콜론, 콤마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도착어 텍스트가 영어권 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문장부호 수는 한국어 기사와 영어권 기사의 중간에 위치한, 혼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합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로는 출발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작은따옴표를 도착어 텍스트에 상당 수 삭제했음에도, 직접인용부호는 대체로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5.3.1장 참조).

<표 17> 경향신문 영어번역: 1차

	하이픈	직접인용	콤마	콜론	문장부호 없음	물음표	기타	합계
번역	17	18	11	9	6	6	4	71

<표 18> 경향신문 영어번역: 2차

	하이픈	콜론	직접인용	콤마	문장부호 없음	말줄임	기타	합계
번역	17 ¹³⁾	15	14	13	5	3	2	69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장부호가 직접인용부호이다. 출발어 텍스트에 사용된 직접인용부호 수와 도착어 텍스트에 사용된 직접인용부호 수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으며, 심지어 1차 조사의 경우 도착어 텍스트에 사용

13) Covid-19에 사용된 하이픈 28건은 제외한 수치임.

된 직접인용부호가 출발어 텍스트에 사용된 직접인용부호 수보다 많다. 또한 일부 문장부호의 경우, 두 언어 간 상이한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출발어 텍스트에 있는 문장부호를 그대로 도착어 텍스트에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하기에서는 주된 문장부호의 사용 및 해당 문장부호의 번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5.3.1 직접인용부호의 번역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인용부호가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 텍스트 간 가장 두드러지는 점으로 꼽혔는데, 직접인용부호가 출발어 텍스트에서는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부호였지만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 2차 조사 결과 모두 출발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직접인용부호를 도착어 텍스트에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를 보면, 1차 조사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에 사용된 13건 중 10건이, 2차에서는 12건 중 10건이 도착어 텍스트에 그대로 직접인용부호로 처리되고 있다. 삭제, 즉 간접인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2~3건에 불과하다. 이는 영어권 기사의 문장부호 사용 경향을 표방하고 있는 번역본(도착어 텍스트)에서의 직접인용부호 사용이 한국어 기사보다 현저히 적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19> 경향신문 출발어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직접인용부호

	출발어 텍스트(ST)	도착어 텍스트(TT)
1차	13건 - 직접인용 13건	18건 - 인용부호 유지 10건 - 인용부호 삭제 3건 -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5건
2차	12건 - 직접인용 12건	14건 - 인용부호 유지 10건 - 인용부호 삭제 2건 -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2건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출발어 텍스트보다 도착어 텍스트에 직접인용부호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출발어 텍스트 13건보다 도착어 텍

스트 18건으로 5건이 더 많고, 2차 조사에서는 출발어 텍스트 12건보다 도착어 텍스트 14건으로 2건이 더 많다(<표 19>). 이는 출발어 텍스트에 나오는 일부 작은따옴표를 직접인용부호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작은따옴표를 스케어 인용으로 처리한 듯하다. 스케어 인용이란 인용된 내용이 아니어서 인용부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관심을 자아내기 위해 단어나 구에 직접 인용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예. the US “maximum pressure”)로 판단하여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Thompson 1996: 513). 작은따옴표를 스케어 인용으로 처리한 예는 5.3.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착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부호를 유지한 경우와 삭제한 기준은 찾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은 직접인용부호를 유지한 경우와 직접인용부호를 삭제한 경우인데, 본문을 찾아보면 전자와 후자 모두 본문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결과를 보여 어떤 기준으로 직접인용부호 유지와 삭제를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도착어 텍스트 번역자(또는 번역 의뢰자 등 번역 이해관계자)는 기사 본문에 해당 내용이 직접인용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출발어 텍스트의 직접인용부호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직접인용부호를 유지한 경우

“내년 도쿄 올림픽 방역 안전 개최에 긴밀히 협력하자”

“Close Cooperation to Keep COVID-19 at Bay for Safe Olympic Games in Tokyo Next Year”

직접인용부호를 삭제한 경우

“동해선 끝 두만강 조려 친선다리까지 가보니 가슴 뭉클”

Reaching the Korea-Russia Friendship Bridge at the End of the Donghae Line: An Emotional Experience

5.3.2 쉼표와 콤마의 번역

쉼표는 다른 한국어 기사와 마찬가지로 경향신문 출발어 텍스트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부호 중 하나다.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대체로 삭제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어 다음에 사용된 쉼표가 이에 해당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어 기사에서 주어나 주제어 다음에 쉼표 사용이 많은 반면 영어권 기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표 20>을 보면 1차 조사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에 사용된 16건 중 9건이 도착어 텍스트에서 삭제되었는데 주어 다음이 7건을 차지하며, 2차 조사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에 15건이 사용되었고 이 중 10건이 도착어 텍스트에서 삭제된다. 2차에서도 주어 다음에 가장 많이 삭제되었다(9건). 그 외에 콤마(1~3건)나 콜론(2건) 등으로 바뀌었으나 그 수가 적으며 특히 쉼표의 콤마로의 번역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음(1차에서 3회, 2차에서는 0회)을 알 수 있다. 국내 기사와 영어권 기사의 비교, 그리고 도착어 텍스트(번역본)를 종합해보면, 주어 다음에 나오는 쉼표를 콤마로 옮기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쉼표를 삭제한 도착어 텍스트의 전략이 영어권 기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표 20> 경향신문 출발어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쉼표(반점)과 콤마

	출발어 텍스트(ST)	도착어 텍스트(TT)
1차	16건 - 쉼표 16건	- 삭제 9건 (이 중 주어 다음 7건) - 쉼표 → 콤마 3건 - 대등절 → 콜론 1건 - 주제어 → 콜론 1건 - 주어 → 세미콜론 1건 - 부사구 → 관계사 1건
2차	15건 - 쉼표 15건	- 삭제 10건 (이 중 주어 다음 9건) - 쉼표 → 콜론 2건 - 인용부호 삭제 2건 - 부사구 이후 콤마, 진치사 등 기타 5건

아래에서 쉼표가 삭제된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쉼표가 삭제된 경우

미, '요구'는 길고 구체적... '보상'은 짧고 원론적

U.S. Demands Long and Specific, While Compensation Brief and General

또한 콤마로 바뀐 경우와 콜론으로 바뀐 예문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부사어구로 처리한 경우이고, 후자는 콜론으로 처리하여 문장부호 앞뒤 내용을 상술이나 향상(인과) 관계로 본 것 같다.

쉼표가 콤마로 처리된 경우
 코로나19 이후, 서울 도심 상가 2만개 사라졌다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20,000 Stores Disappeared from
 Downtown Seoul

쉼표가 콜론으로 처리된 경우
 ‘수감자 사망’ 동부구치소, 마스크도 제대로 안 줬다
 An Inmate Dies at Dongbu Detention Center; Masks Were Not
 Properly Distributed

5.3.3 말줄임표의 번역

말줄임표는 경향신문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문장부호로, 특히 2차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부호로 조사되었다(24건)(<표 16>). 이중 절반 가까이 는 도착어 텍스트에서 콜론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1차에서는 13건 중 7건, 그리고 2차에서는 24건 중 11건이 콜론으로 처리되고 있어 말줄임표의 약 절반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콜론 다음으로 많이 처리된 문장부호(또는 단어)는 1차에서는 어휘(예 ‘and’, ‘while’)로 처리(4건), 2차에서는 어휘(5건), 일립시스(3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21> 경향신문 출발어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말줄임표

	출발어 텍스트(ST)	도착어 텍스트(TT)
1차	13건 - 말줄임표 13건	- 콜론 6건 - 어휘 4건 - 의문부호 1건 - 일립시스 1건 - 대시 1건
2차	24건 - 말줄임표 24건	- 콜론 11건 - ‘and’ 등 어휘 5건 - 일립시스 3건 - 삭제 2건 - 콤마 2건 - 기타 1건

말줄임표를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의미로 구분했을 때, 상기 조사된 두 국내신문과 같이(5.1.3장), 경향신문에서도 ‘상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조사에서는 말줄임표 사용 총 13건 중 상술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확장이 5건, 향상이 1건이며, 2차에서는 총 24건 중 상술이 16건, 확장이 5건, 향상이 2건 그리고 말줄임 본연의 의미가 1건으로, 상술이 전체 말줄임표의 절반을 넘는다.

<표 22> 경향신문 출발어 텍스트: 말줄임표

형태	출발어 텍스트 1차	출발어 텍스트 2차
상술(Elaboration)	7	16
확장(Extension)	5	5
향상(Enhancement)	1	2
말줄임표 본연의 의미	0	1
합계	13	24

이에 따라 상술을 중심으로 도착어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상술은 대부분 콜론으로 번역되었다. <표 23>을 살펴보면, 1차에서는 상술 7건 중 5건이 콜론으로 번역되었고 2차에서는 상술 16건 중 10건이 콜론으로 번역되었다. 콜론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일반적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는 점(곽성희 2006: 121)을 고려해볼 때 일리 있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상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확장은 1차와 2차 모두 5건 중 4건이 ‘and’나 ‘while’ 등의 어휘로 번역되었다. 확장이 순접, 역접 및 대체의 의미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때, 이들 어휘로의 번역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3> 경향신문 출발어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말줄임표의 처리 상세분석

	출발어 텍스트(ST)	도착어 텍스트(TT)
1차	말줄임표 13건	상술→콜론 5건 상술→기타 2건 (대시 1, 의문부호 1)
	상술 7건	확장→어휘 4건
	확장 5건	확장→일립시스 1건
	향상 1건	향상(결과)→콜론 1건

2차	말줄임표 24건	상술→콜론 10건 상술→다른 문장부호 4건(콤마 2, 마침표1, 일립시스 1) 상술→기타 2건(삭제 1, 어휘 1)
	상술 16건 확장 5건 향상 2건 본연의 의미 1건	확장→어휘 4건 확장→콜론 1건
		향상→일립시스 1건 향상→삭제 1건
		말줄임 본연의 의미→일립시스 1건

말줄임표(상술)을 콜론으로 번역한 경우
 내년부터 DMZ 지뢰 제거...남북 군사합의 첫 이행
 The Two Koreas to Remove Mines in the DMZ Next Month; First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말줄임표(확장)을 ‘and’로 번역한 경우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2월 말 회담 장소 골랐다”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Venue Set for N.K.-U.S. Summit at
 the End of February

다만,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말줄임표를 일립시스로 번역한 경우이다. 총 4건으로, 1차 조사에서 1건, 2차 조사에서 3건이 해당한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말줄임표와 일립시스의 기능이 유사해보이나 상당히 다른 문장부호라 판단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줄임표와 일립시스의 기능은, 문장 미완성 표시의 경우는 제외하고, 서로 다르며(김도훈 2011: 123), 뉴스 텍스트에 등장하는 말줄임표의 역할은 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어 텍스트에 말줄임표가 등장한다고 해서 일립시스로 옮길 것이 아니라, 말줄임표 앞뒤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후 해당하는 문장부호(또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의 예는 말줄임표를 일립시스로 번역한 예로, 본문 참조 후 논리의미에 맞춰 번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말줄임표(상술)을 일립시스로 처리한 경우
 “주변 확진자 있으니 불안해서...남에게 피해주기 전에[...]¹⁴⁾ 줄 이은
 발길

“Nervous Because of a Confirmed Case Nearby...Before I Cause Damage to Others...” People Line up at Screening Clinic

말줄임표(확장)을 일립시스로 처리한 경우

“올해 안에 종전선언은 매듭...중국 배제할 생각 전혀 없어”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by the End of This Year...No Intention to Exclude China”

말줄임표(항상)을 일립시스로 처리한 경우

북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개성시 봉쇄” 특급경보

North Korea Declares Emergency, “North Korean Defector Suspected to be COVID-19-Positive Returns...Lock Down Kaesong”

5.3.4 작은따옴표

작은따옴표는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부호인데, 번역본(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1차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작은따옴표 23건 중 18건이 도착어 텍스트에서 삭제되었고 5건은 직접인용부호로 번역되었다(<표 24> 참조). 2차에서는 20건 중 18건이 번역문에서 삭제되었고 2건만이 직접인용부호로 처리되었다. 직접인용부호로 처리된 경우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스케어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출처가 기자 자신이 아니어서 거리를 두어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파악된 경우 큰따옴표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Trask 1997:107), 이들 스케어 인용 몇 건을 제외하고는 작은따옴표가 모두 삭제되었다. 이러한 작은따옴표의 삭제는 도착어 텍스트의 전체 문장부호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작은 따옴표는 그 자체로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보기보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김문환 2018: 36).

14) 두 번째 말줄임표는 예외적으로 문장 미완성의 기능으로 파악되어 일립시스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

〈표 24〉 경향신문 출발어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작은따옴표

	출발어 텍스트(ST)	도착어 텍스트(TT)
1차	23건 - 작은따옴표 23건	- 삭제 18건 - 인용부호로 처리 4건
2차	20건 - 작은따옴표 20건	- 삭제 18건 - 인용부호로 처리 2건

작은따옴표가 삭제된 경우

‘코로나19 감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첫 산재신청
A Worker Infected with COVID-19 at Coupang Logistics Center
Requests Recog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작은따옴표를 스케어 인용으로 처리한 경우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K방역 사령관’ 정은경
“K-Quarantine Commander” Jung Eun-kyeong Appointed Founding
Chief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5.3.4 가운뎃점

가운뎃점은 1차 조사에서 20건, 2차 조사에서 8건으로 확인되었다.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된 이유는 1차 조사 대상 데이터가 북미회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기사 제목에 ‘북미’, ‘한미’, ‘문대통령 김위원장’ 등 회담 관련 국가 및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15건을 차지한다. 번역본에서 이들 단어들은 ‘and’나 하이픈으로 처리되었다. 1차 및 2차 조사 전반적으로 볼 때 가운뎃점은 대체로 ‘and’로 처리하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경향신문 출발어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가운뎃점

	출발어 텍스트(ST)	도착어 텍스트(TT)
1차	20건 - 가운뎃점 20건	- ‘and’로 처리 9건 - 하이픈으로 처리 7건 - 삭제 3건 - 기타 1건
2차	8건 - 가운뎃점 8건	- ‘and’로 처리 6건 - ‘or’로 처리 1건 - ‘for’로 처리 1건

가운뎃점이 포함된 기사 제목과 번역본 예문은 아래와 같다.

‘and’로 처리한 경우

‘한 장 합의문’까지 한발 더 다가선 북_미

North Korea and the U.S., One Step Closer to a One-Page Agreement

사우나_에어로빅 1주간 ‘문 닫는다’

Saunas and Aerobics Studios Closed for 1 Week

하이픈으로 처리한 경우

6월 12일 싱가포르 북_미 정상회담 연다

North Korea-U.S.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가운뎃점을 삭제한 경우

문대통령_김위원장 3차 회담, 내달 중순 평양 개최

President Moon to Meet Chairman Kim for Third Summit Next Month
in Pyongyang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뉴스 기사 문장부호 번역, 특히 한국어와 영어 간 문장부호 번역에 대한 문헌이나 지침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두 언어권의 기사 제목 및 번역본을 주요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여 실마리를 찾아 가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선, 두 언어권 기사 제목에 사용된 문장부호의 수와 종류는 상당히 달랐는데, 한국어 기사가 영어권 기사보다 문장부호 수가 20% 이상 많았고 전자에서는 직접인용부호, 쉼표, 말줄임표, 가운뎃점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에 후자는 콤마, 하이픈, 마침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번역의 경우, 사용된 문장부호의 수는 한국어 기사와 영어권 기사의 중간 정도로 조사되었고, 문장부호의 종류는 영어권 기사에 가깝게 처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직접인용부호의 번역과 일부 말줄임표의 번역에 있어 깊이 있는 분석

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다. 더불어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 역시 문장부호의 수나 종류에 있어서 한국어 기사보다 영어권 기사에 가깝게 작성되었으나 문장부호의 수가 영어권 기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장부호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두 언어권 기사를 비교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장부호는 직접인용부호이다. 한국어 기사 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부호의 수는 영어권 기사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기사 제목에 나온 직접인용이 본문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한국어 기사는 약 10%에 불과한 반면에 영어권 기사는 대체로 모두 본문과 일치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어 기사에서의 과도한 문장부호의 사용은 학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뉴스 기사 한영번역 시 고민해야 하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번역본의 경우도, 전체 문장부호 수나 종류는 영어권 기사와 유사하지만 직접인용부호는 한국어 기사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기사제목에 등장하는 인용부호를 그대로 차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출발어에 등장하는 직접인용부호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본문 내 직접인용의 등장 여부를 파악 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본문 내 직접인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부호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형태가 유사한 문장부호인 쉼표와 콤마는 주로 사용되는 환경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쉼표는 주로 주어나 주제가 다음에 사용되고 있으며 콤마는 문두 부사구나 종속절에 사용되고 있었다. 대등절 다음은 예외적인 경우로, 쉼표와 콤마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본 역시 이러한 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향신문 한국어 기사에서 주어나 주제가 다음에 등장하는 쉼표는 번역문에서 대체로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쉼표와 콤마의 상호 맞교환은 권장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주제어(부사구인 경우)나 대등절의 경우는 쉼표를 콤마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신문기사 제목에 사용된 말줄임표는,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문장부호인 일립시스와 다를 뿐 아니라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줄임표와도 형태나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고에서는 신문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말줄임표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사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상술’, ‘확장’, ‘향상’ 등

세 가지 논리적 의미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말줄임표가 주로 ‘상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상술’은 말줄임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말줄임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다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번역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번역본에서 말줄임표는 상술의 기능이 있는 콜론으로 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일부 번역에서는 한국어 기사 제목에 있는 말줄임표를 영어 번역본에 일립시스로 옮김으로써 말줄임표 전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거나 본문 내용 참조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본고에서는 말줄임표 전후 관계를 논리적 의미로 분석한 후 적절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작은따옴표는 번역본에서 대체로 삭제되었으며 소수만 스케어 인용으로 처리되었고, 가운뎃점은 ‘and’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는데, 일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본고에서는, 뉴스 기사 제목의 문장부호 번역을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과의 관계 및 도착어(영어권)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즉, 직접인용부호의 번역은 본문에 해당 내용이 등장 시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을 권장하며, 쉼표와 콤마는 대등절 이후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맞바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말줄임표는 말줄임표 전후 논리 관계에 따라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은따옴표는 스케어 인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직접인용부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운뎃점은 ‘and’나 ‘or’ 등 해당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는 텍스트 내용에 따른 판단 이외도 번역 의뢰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인데, 한국어 기사 작성 관습과 영어권 기사 작성 관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사 작성 관습은 번역교육 시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부호의 번역에 대한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뉴스 기사 문장부호의 번역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나와서 뉴스 기사의 한영번역과 국내 영자신문 기사 작성에 기준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6) 『번역입문』, 서울: 이지북스
- 김도훈 (2007) 「영한 번역시 나타나는 영어 문장부호 대시(Dash)의 변이 양상 및 번역전략 고찰」, 『이중언어학』 35: 50-102.
- 김도훈 (2008) 「Colon(:)의 기능용례 및 영한 번역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9(1): 7-27.
- 김도훈 (2010) 「대시와 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3): 41-64.
- 김도훈 (2011) 「영어 문장부호 Semicolon(;)의 기능 및 영한 번역 전략」, 『통역과 번역』 13(1): 17-36.
- 김도훈 (2013) 「영어 문장부호 하이픈(hyphen)과 한국어 문장부호 붙임표의 비교 및 영한 번역 전략」, 『영어영문학21』 26(1): 183-202.
- 김도훈 (2017) 「영어 문장부호의 번역 - 역사와 번역투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30(2): 43-65.
- 김문환 (2018) 『TV 뉴스 기사 작성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병건 (2016) 「신문 보도문 직접 인용의 비판적 담화 분석」, 『인문과학연구중언어학』 48: 115-139.
- 김용진 (2004) 「신문 뉴스 인용문의 담화 기능: 미국 신문의 9-11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4(3): 25-52.
- 김정우 (1996) 『언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이론편)』, 서울: 창문사.
- 김진아 (2001) 「문장부호 중요성에 따른 한국어 중국어 문장부호 비교」,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5: 39-50.
- 이준웅, 양승목, 김규찬, 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2(3): 64-90.
- 전기정 (2007) 「한중 문장 부호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46: 353-375.
- 최경희 (2019) 「직접인용부호 번역 교육 - 북미정상회담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5): 217-244.
- 한만열 (2000) 「자역의 문제와 문장부호의 오용」,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 193-214.
- 황은하 (2013)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뉴스표제의 문장부호 번역 연구」, 『번역

학연구』 14(2): 283-311.

- Allen, Robert (2002) *Punctuation*, Oxford: Oxford UP.
- Bystrova-McIntyre, Tatyana (2007) 'Punctuation in Russian and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1): 137-162.
-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 *More Bad News*, London: Routledge.
- Ishenko, Michael (1998) 'Translating Punctuation Marks: Punctuating and Formatting Issues in English-Russian Translation', *Proceedings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155-174.
- Halliday, M. A. K. and Matthiessen, C. M. I. M.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London: Routledge.
- Malmkjaer, Kirsten (1997) 'Punctuation in Han Christian Andersen's Stories and in Their Translations into English', in Fernando Poyatos (e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and Challenges in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the Media*, Amsterdam: John Benjamins, 151-162.
- May, Rachel (1997) 'Sensible Elocution: How Translation Works in and upon Punctuation', *The Translator* 3(1): 1-20.
- Nunberg, Geoffrey (1990) *The Linguistics of Punctuation*, Stanford, CA: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Parkes, Malcolm B. (1993) *Pause and Effect: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unctuation in the We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tridge, Eric (1978) *You Have a Point There: A Guide to Punctuation and Its Allies*, London: Routledge.
- Rodríguez-Castro, Mónica (2011) 'Translationese and Punctuation. An Empirical Study of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International Newspaper Articles (English and Spanish)',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6(1): 40-61.
- Thompson, Geoff (1996) 'Voices in the Text: Discourse Perspective on Language Reports', *Applied Linguistics* 17: 501-530.
- Todd, Loreto (2001) *The Cassell Guide to Punctuation*, London: Orion Publishing.
- Trask, Robert (1997) *The Penguin Guide to Punctuation*, London: Penguin Books.

[Abstract]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Punctuation Marks
in Newspaper Headlines: Implications for Translator Training**

Gyung Hee Choi
(Pyeongtaek University)

Headlines in news article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aratext, and punctuation marks in the headlines comprise an integral part of that paratext. The seemingly clear-cut roles, however, become complicated when the punctuation marks need to be translated between different languages, whose punctuation marks have different functions. This is also true for the language combination of Korean and English, which have two distinct sets of punctuation marks. This complicated situation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research on translating punctuation marks in news stories, one of the most translated types of texts, is rare. There have been studies devoted to translating punctuation marks but their focus is mostly on the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This paper surveys punctuation marks appearing in the headlines of Korean and English news articles to suggest some strategies for translating Korean-to-English news texts with translator training in mind. The main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s headlines from both English and Korean news articles and translations on the two rounds of North Korea-US summits 2018-2019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outcome of this paper includes direct quotation marks being the punctuation marks with the greatest divergence of functi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news articles, which failed to be reflected in translation data. Other results include the findings that commas and ‘banjeom’ only partly overlap in function between the two languages, which is not matched in translation.

Keywords: news article headlines, punctuation marks, Korean-English translation, translator training, quotation marks

주제어: 뉴스 기사 제목, 문장부호, 한영번역, 번역교육, 인용부호

최경희(<https://orcid.org/0000-0001-8639-8301>)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조교수

gchoi@ptu.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체계기능언어학, 기독통번역

논문 투고: 2022년 9월 4일

1차 심사 완료: 2022년 9월 27일

2차 심사 완료: 2022년 10월 12일

게재 확정: 2022년 10월 21일